

KDB생명 인수 5파전... '자본보강' 여부가 승부 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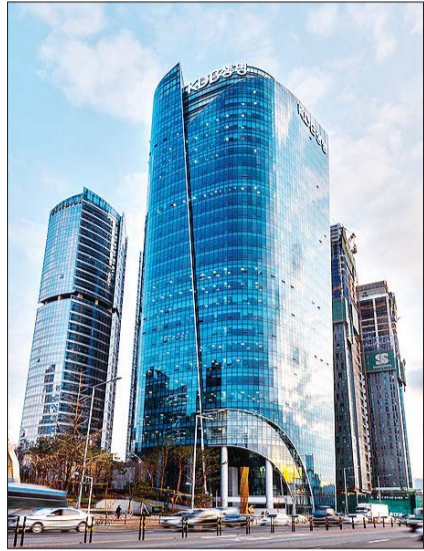
삼성·한화·교보·한투·태광 참여 예비입찰 5곳 적격 인수후보 선정 KDB, 킷스비율 186% 기준 웃돌아 새 주주, 자본 높일 장기계획 필요

KDB생명 인수전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한국투자금융지주·태광그룹 등 5파전으로 압축됐다. 예비입찰은 흥행했지만 실제 본입찰 완주 여부는 산업은행에 지급할 주식 인수대금뿐 아니라 인수 이후 감당해야 할 자본보강과 경영 정상화 비용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초 예비입찰에 참여한 5곳을 모두 적격인수후보로 선정했다. 후보들은 현재 KDB생명의 보험부채와 보유계약, 자산운용 현황 등을 살피는 실사를 진행 중이다.

◆ 5000억 넣었지만 기본자본은 41.9% 이번 인수전의 핵심은 KDB생명의 '자본의 양과 자본의 질' 사이에 벌어진 간극이다. 올해 1분기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제도(K-ICS·킷스) 비율은 186.1%로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30%를 웃돌았다. 반면 경과조치를 제외한 킷스 비율은 74.5%에 그쳤다.

손실흡수력이 높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기본자본비율은 경과조치 후에도 41.9%였다.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으면 -25.2%다. 기본자본도 경과조치 후에는 4108억원이지만 이를



KDB생명 매각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 사옥. /KDB생명

제한하면 -3567억원으로 마이너스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KDB생명에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순자산과 전체 킷스비율을 끌어 올렸지만 투입액이 모두 기본자본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분기 경과조치 전 순자산은 6356억원으로 늘었으나 기본자본에서 제외돼 보완자본으로 재분류된 항목도 992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약환급금 상당액 초과분이 7520억원을 차지했다. 금리 상승으로 시가평가한 보험부채와 원가 기준 해약환급금 사이의 차이가 커지면서 순자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기본자본으

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대주주의 지원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재무건전성에도 손실이 트였다"며 "유상증자 이후에도 보험영업 경쟁력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실제 가격표는 '주식값+자본보강+정상화'

금융당국은 오는 2027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킷스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한다. 50%를 밑돈다고 즉시 적기시정 조치를 받는 것은 아니다. 2027년 비율을 출발점으로 2036년까지 50%에 도달하도록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을 적용하는 경과 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새 주주는 금리와 환율, 보험부채 변동을 고려해 기본자본을 지속적으로 높일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 확대에 따라 요구자본이 늘면 필요한 자본도 달라질 수 있어 외부 공시만으로 추가 투입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KDB생명의 영업 기반은 인수 매력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7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고, 보유계약 가운데 보장성보험 비중도 75%를 웃돈다. 반면 지난해에는 1119억원의 손실실을 기록한 만큼 최근 실적 반등이 안정적인 이익 창출로 이어질지는 실사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KDB생명은 매각 절차와 별개로 자체적인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

장이다. 김병철 대표 취임 이후 방카슈랑스와 전속설계사,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모든 영업채널을 기반으로 영업력을 회복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결국 인수 후보가 계산할 실제 가격은 ▲산업은행에 지급하는 주식 인수대금에 기본자본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품과 영업채널·자산부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정상화 비용을 더해야 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기존 영업망과 상품·자산운용 부문의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KDB생명의 요구자본까지 그룹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태광그룹은 보험사업 진출 확대라는 전략적 효과가 큰 대신 운영체계 정비와 자본관리 부담을 함께 감수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산업은행의 추가 자본 투입 여부와 인수가격 조정, 인수자의 신주 투자 병행 등이 원매자의 총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택지로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구조나 추가 자본확충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KDB생명 관계자는 "매각과 관련해 회사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은 없다"며 "현재는 매각 절차와 별개로 보험영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등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전경.

대우건설 美-이란 종전 합의 '중동재건 TF' 구성

대우건설은 미국·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중동 지역의 대규모 재건·개발 투자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동재건 TF'를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해외영업을 총괄하는 글로벌인프라분부를 중심으로 플랜트·토목·건축 등 사업본부의 해외 개발사업 및 수주 영업 기능을 아우르는 협업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먼저 진출 경험이 있는 중동국가 피해국의 인프라 복구 공사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란 시장 재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이란에서 반다르 아바스-바프간 철도공사, 아화즈 발전소, 하르그섬 해상 송유기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사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향후 '중동재건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해외건설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중동 재건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대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신규 사업 정보 수집에도 합력 예정이다. 특히 국내 주요 건설사 간 팀 코리아(Team Korea) 협업 구도 구성에도 적극 동참하여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하나금융 장애인 사회진출 지원 취업교육·고용연계 사업

하나금융그룹은 발달·청각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교육 및 고용연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직무교육, 취업 준비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3단계 취업 지원을 통해 발달·청각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연계하고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은 오는 7월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를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하며, 직무별 심사를 거쳐 ▲발달 장애인 60명 ▲청각 장애인 15명 ▲경계선 지능인 10명 등 총 85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경계선 지능인까지 확대하고 3가지 신규 직무교육 과정을 추가하는 등 지원 범위를 한층 넓혔다. 이를 통해 청년 장애인의 직무 선택의 폭과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115@

상호금융, 포용금융 드라이브... 하반기 대출 확대

새마을금고, 5년간 1000억 출연 신보 보증서 담보 1.1조 대출 취급

상호금융권이 포용 금융에 드라이브를 건다. 하반기 중 포용 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중장기적인 자금 공급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 등은 올해 하반기 포용 금융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 정부의 포용 금융 기조에 발맞춰 취약계층 중심으로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내달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보증부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중앙회가 5년간 총 1000억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이 대출 100%를 보증한다. 지역 금고는 신용보증

재단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총 1조 1000억원 대출을 취급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가치 실현을 위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뜻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환원 등을 연결해 일자리·복지·공동체 활동 등 추가적인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금융 본부를 신설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보증부 상품 출시 외에도 대출 지원·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도 이른 시일 내에 사회연대경제 조직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

다.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면서다. 그간 신협법 내에는 개별 신협이 대출 사업을 위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금융위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 확대를 위해 개별 신협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협법을 개정한다.

이 외에도 신협은 오는 10월 비대면(온뱅크) 신용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금융권 수준의 금리 경쟁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포용 금융 정책 강화 기조가 꼽힌다. 최근 금융위는 지난 4월 출범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포용 금융전략추진단 소분과로 편입했다. 조직 체계를 확대해 상호금

용 포용 금융 역할 강화를 공고히 한다는 취지다.

사회연대경제 조직 금융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금융위는 오는 2030년까지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용보증 보증 한도를 최대 35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금융권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 것.

상호금융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포용 금융 관련 예산을 확대·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은행,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범농협 차원의 포용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5년 간 총 15조 3000억원 규모의 포용 금융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금호 '왕속 아테라' 최고경쟁률 393.6대 1

223가구 모집에 2.3만명 몰려

3기 신도시 왕속2지구 첫 분양의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에 달하면서 흥행이 예고됐다.

23일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금호건설이 경기 남양주 왕속2지구 A-1블록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아파트 왕속아테라는 지난달 진행된 일반공급 청약에서는 223가구 모집에 총 2만3525명이 신청했다. 청약경쟁률은 평균 105.5대 1이며, 최고 경쟁률은 393.6대 1을 나타냈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131

가구 모집에 1만4001명이 신청해 평균 10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왕속 아테라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84㎡, 총 8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350가구 ▲59㎡B 188가구 ▲74㎡73가구 ▲84㎡201가구 등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남양주 왕속2지구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이패동 일원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약 1만6000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계획됐으며,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 다산신도시, 왕속1지구,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지와 인접했다.



경기 남양주 왕속2지구 '왕속 아테라' 투시도. /금호건설

왕속 아테라는 왕속2지구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단지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분양관계자는 "왕속아테라는 왕속2지구 첫 공급 단지에 가격 경쟁력과 입지 여

건이 맞물리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금호건설의 새 주거 브랜드 '아테라'가 적용된 만큼 향후 지구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교통 인프라로는 단지 반경 1km 이내에는 946억(가칭, 예정)이 신설될 예정이며,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예정 노선과 경의중앙선 역사 신설이 계획돼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제1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포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속2-다산 연결도로도 예정돼 있다.

정당계약은 8월 10~14일 진행된다. 기본주택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